

불자 세상보기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여행이라고 하면 웬지 해외여행이란 말이 떠올라 은근히 돈 걱정을 하게 되지만, 휴가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그런 스트레스가 덜한, 글자 그대로 잠시 일로부터 벗어나 '쉬는 시간' 정도로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어 부담이 적은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겨울 휴가라는 용어가 따로 없으니 휴가라면 대체로 여름 휴가를 가리킨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니 장마가 끝난 8월 초가 피서의 절정을 장식하지 않을까 싶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도 '휴가'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떠나 할 것 없이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오느라 휴가라는 말은 건강생심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상전벽해를 실감하게 된다.

이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세대가 향유하고 있는 삶의 축복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덕분에 우리는 저마다 교유의

빛깔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공간을 채울 나만의 콘텐츠를 구상할 수 있게 되었다. 휴가는 그런 콘텐츠 가운데 하나로 그 중요성을 널리 공인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번 여름휴가는 휴가의 후유증 때문에 다시 휴가신청을 해야만 될 것 같은 피곤한 휴가가 아니라 풍성한 내면을 가꿀 '내려놓음과 섬'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을 세워 보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교통체증의 짜증과 피서지의 불쾌한 기억들, 그리고 휴가비용을 고민하지 않아도 될 그런 휴가계획 말이다.

여기에 딱 들어맞는 휴가보내기가 바로 독서 휴가이다. 독서 휴가는 독서 피서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읽고 싶었던 책을 마음껏 읽으면서 틈틈이 동네 한 바퀴를 돌거나 기분이 내키면 가까운 산이라도 오르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그런대로 꽤 실속 있는 휴가가 아닐까? 뭐, 어디든 많이 다녀본 진부한 말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예부터 이런 방식으로 더운 여름을 난 선비들도 많았다고 하니 애써 위안을 삼아 보기로 한다.

조선 중기의 문신 윤증이 쓴 '더위

(暑) 라는 시에는 무더운 여름날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선비들의 고상한 멋이 행간마다 절절히 묻어난다.

"구름은 아득히 멀리 있고/나뭇가지에 바람 한 점 없는 날/누가 이 더위를 벗어날 수 있을까/더위 식힐 음식도, 피서도구도 없으니/조용히 책을 읽는 것이 제일이구나."

연암 박지원도 이맘때쯤 사촌형에게 보낸 편지에서 "옷을 벗거나 부채를 휘둘러도 불꽃같은 열을 견뎌내지 못하면 더욱 덥기만 할 뿐"이라며 "책읽기에 착심(着心)해서 더위를 이겨내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성군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에게 독서휴가를 주어 책읽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가독서제(賜暇讀書制)를 실시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런 '책읽기 폭탄 세례'를 받은 학자들이 발취한 창의 산이라도 오르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그런대로 꽤 실속 있는 휴가가 아닐까? 뭐, 어디든 많이 다녀본 진부한 말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예부터 이런 방식으로 더운 여름을 난 선비들도 많았다고 하니 애써 위안을 삼아 보기로 한다.

조선 중기의 문신 윤증이 쓴 '더위(暑) 라는 시에는 무더운 여름날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선비들의 고상한 멋이 행간마다 절절히 묻어난다.

면 어느 시점에선가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았던 생생한 울림, 예컨대 갑자기 번갯불을 본 듯하고 문득 천둥소리를 들은 것과 같은 환희심이 솟구쳐 오를 때가 있다. 이 때 우리의 영성은 더욱 맑아지고 통찰력은 더욱 깊어진다.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힐링이 일어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힐링의 담론은 몇몇 유명 힐링 멘토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와 같은 방식은 자칫하면 힐링의 상업주의를 부추길 위험성이 크다고 본다.

이는 우리 모두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힐링을 해야 되겠다는 조바심이 또 다른 집착을 낳게 되기 때문이다. 힐링 관련 책을 읽어야 힐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책을 습관적으로 읽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 그대로 힐링이 되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아직 별다른 휴가계획이 없는 독자들이 있다면 '독서 휴가' 내지는 '독서 피서'를 한번쯤 고려해 볼 것을 '강추' 한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지 않는 한 '문화재 환수' 없다



혜문 스님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귀중한 물건을 대량 훔쳐갔던 도둑이 잡히며 사과와 함께 물건을 돌려주기로 약속했다. 그 도둑은 당신에게 사과와 함께 훔친 물건 중 일부를 돌려주었다. 시간이 지나고 당신은 그 도둑이 당시 훔쳐간 물건 중 값어치 있는 것들은 숨기고 돌려주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들로부터 약탈해 간 것 중 공식적으로 확인 된 것만 6만여 점이다. 1965년 한일국교가 정상화되며 당시 일본정부는 약탈 문화재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했고 한국정부가 요구한 문화재의 32%를 돌려주었다. 그런데 50년이 지나서야 당시 일본정부가 약탈 문화재 중 대부분을 이르바 '희소본'이라는 표기와 함께 숨겨 왔음이 드러났다.

위안부 할머니와 일본시민단체 '한일 회담 문서의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이 일본 법원에 제기한 문서공개 소송 과정에서는 은폐 문화재 목록의 존재와 함께 '한국 측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은폐 저의도 함께 드러났다.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한 한국 문화재 일람표, 테라우치 문고 관련 기록, 쇼료부 소장 서적 목록 등은 우리 문화재의 반출 경위를 알 수 있는 문서다. 이 문서가 모두 공개되면 불법반출된 문화재의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당장에만도 도쿄국립박물관이 전시 중인 경주 금관총 출토 유물이 불법반출된 정황이 있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 이번 문서 공개건에서도 정부 관계자의 이 부분은 시민단체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정도이니 정부의 입장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세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환수 속도가 더디기만 하다. 환수문화재에 대해 조사하는데 그치고 있다. 본격적인 환수는 20년이 넘게 걸린다는 말이 있다. 재단 곳곳에 정부의 관료들이

있어 일처리가 늦다는 말도 있다. 한국의 언론도 이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 이번 문서 공개 소송과정을 보면 추가적인 노력의 전방위적으로 필요함을 느낀다. 가장 먼저는 불법 도난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문화재제자리찾기는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황룡사 기와, 석가여래상, 약사여래상, 불화 등 오구라컬렉션에 대한 취득경위를 공개하고, 반환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지난 2010년부터 오구라컬렉션에 주목해 왔고, 오구라가 작성한 '오구라컬렉션 목록'을 입수 4건 34점이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로 수집된 도난도굴품임을 밝혀냈다. 이에 도쿄국립박물관에 8월 1일 보관증지 요청서를 발송하고, 8월 20일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일본 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다.

문화재 환수는 우리의 민족 정기를 찾는 과정이다. 가장 먼저 나태함이 없어야 한다. 이에 대한 국민들, 불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에 있는 오구라 컬렉션 중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백제 7세기 불상으로 공주의 한 절 석탑에서 발견됐다고 전해진다.

社說

위례신도시 종교용지 확보에 거는 기대

조계종 총무원이 지난 4월 세종신도시 종교용지 매입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위례신도시 종교용지 매입 계약을 7월 31일 체결했다. 총무원 집행부가 종교용지 매입하는 것은 이번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두 번째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이번에 확보한 위례신도시 내 종교용지에 전통가람 양식과 도심사찰의 특성을 잘 반영시켜 건립하고, 건립이후 수행과 수행활동의 거점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매입 비용은 세종시 종교용지와 거의 비슷한 평수인 약 3천평인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위치하다보니 매입 비용이 세 배 가까이 더 들었다. 하지만 이번 용지가 더욱 의미있는 것은 특수전사령부와 제3특전여단의 군법당으로 사용하던 호국 사자사와 일대 부지를 매입했다는 점이다. 부대 이전에 따라 폐사 예정인 부지를 조계종이 매입

함으로써 신도시 포교의 거점사찰로 재탄생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신도시 종교용지 매입은 개별 사찰 단위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다보니 신도시 종교용지 확보는 그동안 종단의 해묵은 과제였다. 33대 집행부에서 시작된 종교용지 매입 추진 계획이, 34대 총무원 집행부서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위례신도시 종교용지 매입은 분당 신도시포교에 큰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다.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과 불사계획을 마련해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 종교용지 매입 계약은 성사됐지만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종시 종교용지 매입대금도 계약금 이외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신도시 포교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생활 수준이 높은 점을 감안해 과연 우리 불교가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줄 수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템플스테이가 여름 휴가문화를 바꾼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여름이 찾아왔다. 8월 첫째 주와 둘째 주가 피서에 절정에 이르는 소식이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다. 올해 4월 16일 벌어진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내수 경기는 침체이며, 정치인들은 정쟁만을 거듭하고 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피서지보다 휴식과 힐링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 10선'을 선정했다고 한다.

어린이들이 다양한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고, 가족이 함께 힐링하며, 내면의 여행을 찾는 세 가지가 이번에 선정된 여름 템플스테이 주요한 테마이다.

군이 선정된 10개의 템플스테이 사찰이 아니라도 '아생여당'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가진 사찰들이 전국에 산재돼 있다. 시원한 여름 산사는 사람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게 할 준비를 마쳤다.

국민들이 템플스테이를 통해 마음의 평안과 힐링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지난해 발표한 '템플스테이의 사회공익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성취도에 있어 스트레스 해소 및 자아성찰 등 정신건강 가치가 5.45(7점 만점)로 가장 높았으며, 템플스테이 발전의 중요 가치 역시 정신건강이 6.32점(7점 만점)으로 국민들은 템플스테이의 정신적 가치에 기대·주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기대하고 주목하는 만큼 불교계와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들은 산문을 활짝 열고 대중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참가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름철 안전 역시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이다.

이제 여름의 절정이다. 지치고 힘든 당신, 휴가철 향락보다는 여름 템플스테이로 떠나고 불 일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해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회사홈 연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8977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범어문도에 공개 건의

성주사 문제 대화로 해결해야 합니다!

귀의삼보 하오며,

존경하는 범어사의 대덕과 문도 여러분!

'범어사'라는 사명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공지와 경건함을 느끼던 때가 있었습니다. 선사상의 진작을 통해 피폐한 한국불교의 현실을 바로잡고자 노력하며 역사의 매 고비마다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온 선찰대본산 제14교구본사가 아닙니까!

지난 2년 사이에 범어사는 문중의 바람대로 총림으로 도량을 장엄하였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이하여서는 '한반도평화대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종단과 불교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대도시(부산광역시)를 품고 있는 유일한 본사로서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국불교에 새로운 바람이 일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오늘 금정총림이 과연 원용과 화합이란 총림상을 잘 구현하고 있는지, 본사 범어사가 대중과 불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불교중흥에의 기여는 고사하고 문도들이 말사 성주사를 놓고서 갈등과 반목을 지속한다면 그 어떠한 명분을 떠나 본분사를 망각한 처사입니다. 강압과 물리적 충돌은 결단코 승가가 행할 바가

아닙니다. 이제 잠시나마 반목했던 과오를 거름삼아서 대 화합과 원용의 장으로 회향한다면 모두에게 큰 지남이 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범어사와 종단의 발전을 위해 부디 마음을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음

- 종진 대덕은 성주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 범어사 집행부와 성주사는 모든 제소를 취하하고 대화로써 해결하십시오!
- 임회는 종법에 근거한 활동으로 본사의 위상과 역할을 회복해 주십시오!

불기2558(2014)년 7월 31일

法應 합장

(전 범어사 운영위원)